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Review and Prospects for Research on Family Resilience

박혜란·전귀연*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Park Hea Rhan·Jeon Gwee-Yeon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research methodology and findings of various researches on family resilience published in Korea over the past 13 years. A total of 93 publications related to family resilience between 1999 and June of 2012 were analyzed; 72 journal articles and 21 doctoral dissertations which had not been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has been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related researches since 1999, with a significant increase since the mid-2000s as various nontraditional families emerged and the perception of family problems began to change. (2) With regards to the methodology, the majority of the studies were empirical, using quantitative methods in bot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ost measurement scales employed were based on inventories developed by foreign researchers. (3) The research subjects encompass a wide range of individuals and groups from both vulnerable families and familie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Additionally, some researches focused on special interest areas including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and scale development. Although research on family resilience has increased in quantity, there needs to be more qualitative, longitudinal and theory grounded studies on different families and individual types to better understand family resilience in depth. In addition, specific measurement scales reflecting the unique Korean family culture should be developed. Other challeng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on family resilience are discussed.

Keywords: family resilience, research review, research prospect

I. 서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산업화 및 정보화, 세계화 등을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 가족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은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여러 생활사건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

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며, 가족기능 수행에 위협을 받게 된다(Coyle *et al.*, 2009).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환과 위기상황에서도 어떤 가족은 보다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반면, 어떤 가족은 쉽게 좌절하여 파국으로까지 치닫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가족 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강점을 지닌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됨.

* Corresponding Author: Jeon, Gwee-Yeon

Tel: 053-950-6212, Fax: 053-950-6209

Email: gyjeon@knu.ac.kr

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기능적 단위로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Walsh, 2006). 즉 문제를 지닌 가족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1970년대 위기나 역경의 경험이 개인에게 단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회복의 잠재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가족학자들(ex: Walsh, 1998, 2006)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생활역경에 직면하면 회복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족차원의 관점으로 확대하였다(Sixbey, 2005).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가족의 결핍 또는 병리보다는 가족강점(Stinnett & DeFrain, 1985)과 자원(Karpel, 1986)을 더욱 강조하는 가족학과, 긍정적 정신건강과 효과적 기능(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을 더욱 중시하는 심리학의 경향을 반영한다(as cited in Patterson, 2002). 이와 같이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에 대한 병리적 관점보다는 강점 관점을 토대로 가족에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힘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다양한 인간봉사 전문가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Jung, 2010) 가족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주요한 개념으로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최근 10여 년간 가족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학,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Sixbey(2005)는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forms)를 취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며, 상이한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주제와 공통 요인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전의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비교적 근래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들 간의 상이한 개념 및 구성요소, 용어사용 등의 측면에서 혼란이 엿보이며(Jung, 2010; Patterson, 2002), 무엇보다 그동안 국내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는 양대 지류인 McCubbin과 McCubbin(1993) 모델과 Walsh(1998) 이론의 척도 및 구성요소의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검증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망된다. 따라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현 시점에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동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실제 적용에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고찰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알아보고 둘째, 방법론적 경향과 셋째, 연구주제 및 내용을 고찰하고 넷째,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이론적 모델 및 구성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문화적 적용의 특성 및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한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과 구성요인을 찾아내는데 기초 자료가 되어 보다 타당성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연구와 실천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고찰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지난 13년 동안 발표된 가족 레질리언스 관련 국내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family resilience’는 그동안 ‘가족탄력성’(74.2%), ‘가족 레질리언스’(16.1%), ‘가족회복력’(3.2%), ‘가족복원력’(2.1%), ‘가족기능회복력’(1.1%), ‘가족적응유연성’(1.1%), ‘가족극복력’(1.1%), 그리고 ‘가족의 내재된 힘’(1.1%)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을 거쳐 family resilience 개념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하여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고자 ‘가족 레질리언스’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분석 대상 연구들을 언급할 때는 해당 연구의 저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 72편과 학술지에 논문의 일부 또는 요약본이 게재되지 않은 박사논문 21편으로서 총 93편이었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및 가족학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고찰한 선행논문들(ex: Kim *et al.*, 2009)을 참고하여

우선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분석 기준으로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연구결과의 세 측면을 선정하였다.

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 그리고 자료 분석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가족관계 및 개인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척도개발 연구, 이론연구 및 기타 등의 4가지 연구주제로 분류하여 가족유형별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척도,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소 및 하위요소들의 영향력, 그리고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이상의 세 측면에서의 분석과정에서, 분석기준별 방법에 따라 해당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논문의 내용이 분석의 하위 항목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Ⅲ. 고찰결과

1. 연도별 연구동향

우선, 외국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는 1980년대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역경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기능하는 아동에 대한 개인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90년대 후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한 가족 기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었다(Walsh, 2003).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정보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가정 붕괴와 해체를 경험하면서,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족부양문제, 외국인 노동자나 배우자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간의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적 접근을 점차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발표논문의 수를 가족유형에 따라 연도별로 나타낸 <Table 1>을 보면, 한국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9년도부터이다. 본 연구에서 1999년부터 발행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가족 맥락에서 resiliency model을 이용한 Oh와 Lee(1999)의 연구를 가족 레질리언스 분야의 초기논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된

(Table 1) Number of Publications

Family Type Year	Family of a member with disabilities	Single parent family	Multicultural family	Family of an elderly dementia	Family of a member with illness	Family of an alcoholic	Adoptive/Foster care family	Family of a domestic violence victim	Family in poverty	Family of a retiree	Family of a missing child	General family	Total
99-00	2			1									3
01-02	1				1	1							3
03-04	2				2					1		2	7
05-06	2	1		1				1				3	8
07-08	4	4	1	3	1		2					2	17
09-10	11	4	4	1		2	1	1			1	7	32
11-12	7	3	3		1			1	1			7	23
Total	29	12	8	6	5	3	3	3	1	1	1	21	93

것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며, 연구주제도 초기에는 장애아 및 장애가족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좀 더 다양화되어 한부모가족, 알코올중독가족, 빈곤가족, 다문화가족, 그리고 치매가족/만성질환가족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초기에 주로 역정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가 점차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일반 가족에도 적용하여 일반가족 전체나 개인구성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고찰

1) 연구대상

우선, 연구대상은 유아/아동, 청소년, 대학생, 부모-자녀, 부, 모, 부모, 형제, 교사, 부부, 남편, 아내, 환자의 가족, 환자와 가족, 중년, 주부, 가족전체, 외국인노동자, 문헌/기사 등으로 다양하였다. 그중 어머니(24.7%)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16.1%), 환자의 가족(14.0%), 부부(6.5%), 환자와 가족(3.2%) 순이었다.

대상 표집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 200~300명 미만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4.4%), 그 다음은 300명 이상(21.5%), 100~200명 미만(20.4%)의 순이었다. 표집의 크기가 50명 미만인 연구들(18.3%)은 대부분 문헌 연구, 질적연구 또는 프로그램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었다.

2) 연구유형

분석대상 연구의 유형은 문헌 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논문 한 편이 이들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중복 표기하였다.

<Table 2>에 나타나 있듯이, 대부분 양적연구(85.6%)이며, 문헌 연구는 1.7%, 질적연구는 12.7%이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양적연구 중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61.0%)였고, 프로그램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12.6%), 프로그램개발 연구(9.2%), 그리고 척도개발 연구(2.5%)가 그 뒤를 이었다. 관찰법을 사용한 질적연구는 4.2%, 면접법 이용은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논문은 8편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고찰, 관찰, 면접, 설문지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설문지 사용법이 83.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면접(9.5%), 관찰(4.8%), 그리고 문헌고찰(1.9%)이 뒤를 이었다. 또한 설문지와 면접을 병행한 연구는 4편, 설문지와 관찰을 병행한 연구는 1편, 그리고 설문지와 면접, 관찰을 사용한 경우는 1편으로 밝혀졌다. 실천 현장에서나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를 사정하거나 측정하는 문제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양적연구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측정문제에 질적연구방법을 보충하는 연구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Jung, 2010).

4) 측정도구

① 적용 측정도구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Research Type

Research Type		f*		%	
Literature Review		2		1.7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101	72	85.6	61.0
	Program development		11		9.3
	Program evaluation (Experiment)		15		12.7
	Scale development		3		2.5
Qualitative Research	Observation	15	5	12.7	4.2
	Interview		10		8.5
Total		118		100.0	

* multi frequency

첫째, 척도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74편, 91.4%)에서는 외국인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중 McCubbin *et al.*(1993)의 가족 레질리언스 모델 이론에 근거하여 도구를 재구성한 논문은 23편(31.1%), Walsh(1998)의 이론에 근거하여 도구를 재구성한 논문은 46편(62.2%), 두 이론에 근거하여 도구들을 병합하여 사용한 논문은 3편(4.1%)이었으며, 나머지 2편(2.7%)은 그 외의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Walsh의 이론에 따라 Sixbey(2005)가 제작한 가족 레질리언스 평가척도(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FRAS)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는 연구(Kim, 2010c)들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4편(4.9%)에 불과하였다. 이중 1편은 Lee *et al.*(2002)이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3편은 Yoo(2004)가 개발한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중의 일부

인 가족 레질리언스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문헌과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도구를 직접 고안하여 사용한 경우도 3편(Shin *et al.*, 2010; Park, 2011; Yang & Yoon, 2012) 있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척도를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적용 하위요인

가족 레질리언스의 대표적인 이론적 틀로는 McCubbin *et al.*(1993)의 가족 레질리언스 모델과 Walsh(1998)의 이론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외국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분석대상 연구 중 Walsh와 McCubbin *et al.*(1993)의 이론을 병합한 연구 3편과, 그 외의 이론에 근거한 연구 2편은 제외하고, 순수히 각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적용된 하위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Table 3〉 Measurement Scale

Scale	Based on Theory of				f*	%
	McCubbin	Walsh	McCubbin+ Walsh	Others		
Scales developed by foreigners (partially revised)	23	46	3	2	74	91.4
Scales developed in Korea					4	4.9
Scales developed by researcher					3	3.7
Total					81	100.0

* multi frequency

〈Table 4〉 Key Factors in Family Resilience

Key Factors in Family Resilience				f	
McCubbin et al.	Family Hardiness			23	
	Family Coherence			14	
	Social Support			14	
	Problem Solving and Coping			14	
	Family Communication			15	
Walsh	Belief System	1. Make Meaning of Adversity		45	33
		2. Positive Outlook			36
		3. 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			8
	Organizational Patterns	4. Flexibility		46	38
		5. Connectedness			40
		6.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			38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7. Clarity		41	36
		8. Open Emotional Expression			35
		9.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36

우선, McCubbin *et al.*(1993)의 가족 레질리언스 모델 이론을 근거로 척도를 구성한 총 23편의 논문 가운데 가족 레질리언스의 5개 하위 구성요인 즉, 가족강인성, 가족응집성, 사회적지지,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 가족의사소통을 모두 적용한 연구가 5편이었으며, 4요인 적용연구는 11편, 3요인 적용연구는 5편, 2요인 적용연구는 2편이었다. 그중 가족강인성은 23편 모두에서 채택되었으며, 가족응집성은 14편, 사회적지지는 14편,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은 14편, 가족의사소통은 15편에서 사용되었다. 이외에 적용된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스키마, 가족관리자원, 가족인지평가, 위기상황 재구조화 등이 있었다.

Walsh(1998)의 이론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를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Walsh의 이론을 근거로 척도를 구성한 총 46편의 논문 가운데 세 차원 모두를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으로 본 논문은 41편, 신념체계와 조직패턴만을 다룬 논문은 4편, 그리고 조직패턴만을 다룬 논문은 단 1편이었다. Walsh는 각 차원별로 3가지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는데, <Table 4>를 보면 연결성은 대다수의 논문에서 고려된 반면, 영성과 초월 요인은 가장 적게 포함되었다. 또한 9개 하위요인 모두를 다룬 논문은 19편, 8요인 12편, 7요인 1편, 6요인 3편, 5요인 1편, 그리고 3요인을 다룬 논문은 3편이었다. 한편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지 않고 3개 주요 구성요인차원만 고려한 논문은 7편이었다.

③ 요인별 적용 척도

본 분석 대상 연구들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기존 외국 척

도들의 종류와 사용 빈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McCubbin *et al.*(1993)의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의 척도를 살펴보면<Table 5 참조>, 각 요인 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들은 FHI(Family Hardiness Index), FACES-III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SSI(Social Support Index), F-COPES(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FPSC(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등으로 대부분 McCubbin의 척도였으며, Park(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였다.

반면, 단일척도가 제시되지 않은 Walsh의 9가지 가족 레질리언스 하위요인 측정에서는<Table 6 참조> 신념체계는 FSOC(Family Sense Of Coherence)와 Olson의 Family Strength Scale, 조직유형은 FAD(Family Assessment Device), FACES-III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와 FIRM(The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은 FAD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척도사용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문들은 척도를 구성할 때 McCubbin *et al.*(1993)과 Walsh의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논문마다 고려하는 요인들의 수나 종류가 일치되지 않고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Walsh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초기의 연구자(Kim, 2001a)가 기존의 외국척도를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 다시 수정보완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존 연구들의 척도가 Walsh의 신념체계의 개념을 잘

(Table 5) Usage of Scales for Family Resilience Factors: McCubbin *et al.*

Factors	Scale	f
Family Hardiness	• McCubin, McCubbin, & Thompson(1986). FHI	21
	• McCubin & McCubbin(1996). FARCA	2
Family Coherence	• Olson, Porter, & Lavee(1985). FACES-III	10
	• McCubbin <i>et al.</i> (1982). FCCI	2
	• Antoovsky & Sourani(1988). FSOC	2
Social Support	• McCubbin, Olson & Larsen(1982.) SSI	6
	• Park J. W.(1985). Social Support Scale	5
	• McCubbin, Olson & Larsen(1981). F-COPES	3
Problem Solving and Coping	• McCubbin, Olson & Larsen(1981). F-COPES	12
	• McCubin & McCubbin(1996). FARCA	2
Family Communication	• McCubin, McCubbin, & Thompson(1988). FPSC	15
Family Scheme/ Evaluation	• McCubbin, Olson & Larsen(1981). F-COPES	5
Resources for Management	• McCubin & McCubbin(1996). FARCA	2
	• McCubbin, Comeau & Harkins(1981). FIRM	1

(Table 6) Usage of Scales for Family Resilience Factors: Walsh

Factors	Subfactors	Scale	f
Belief System	Making Meaning of Adversity (Family Coherence)	• Antioovsky & Sourani(1988). FSOC	25
		• Moos & Moos(1994). Family Environment Scale	5
		• Fife(1995). CMS	2
		• Sixbey(2005). FRAS	1
	Attitude	• Yuker et al.(1988). ATDP	10
		• Others	2
	Positive Outlook (Family Strength)	• Olson. Family Strength Scale	31
		• Olson et al.(1987). ENRICH / Sixbey(2005). FRAS	3
Organizational Patterns	Flexibility	• Dunkan & Brown(1992). Remarried Family Strengths Scale	2
		• Moos & Moos(1984). Family Environment Scale	3
		• McCubbin & Thompson(1985). F-COPES	3
		• Olson et al.(1987). ENRICH / Sixbey(2005). FRAS	2
	Connectedness	• Epstein et al.(1993). FAD	27
		• McCubbin et al.(1996). FACI8	5
		• Olson et al.(1985). FACES-III	4
		• Sixbey(2005). FRAS	1
	Social & Economic Resources	• Olson et al.(1985). FACES-III	28
		• McCubbin et al.(1996). FACI8	5
		• Sixbey(2005). FRAS	1
		• Others	2
Communication Processes	Clarity	• McCubbin et al.(1981). FIRM	31
		• Olson et al.(1987). ENRICH / Sixbey(2005). FRAS	2
		• Others	2
	Open Emotional Expression	• Epstein et al.(1993). FAD	33
		• Olson et al.(1987). ENRICH / Sixbey(2005). FRAS	2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 Epstein et al.(1993). FAD	34
Others: Boehm (2007) Resiliency mode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4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Yang과 Yoon(2012)의 지적과 같이, 결국 가족 레질리언스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요인을 다른 도구로 측정하고 있어 합의된 보편화된 개념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에서 문헌연구와 일부 질적연구 5편을 제외한 88편에서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88편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총 285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양적 분석방법이었고, 질적 분석방법은 2.8%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

본적으로 이루어져 가장 많았다(76회). 추리통계 중에서는 χ^2 검증, t검증, F검증, 분산분석 등의 집단 간 차이검증(68회)이 가장 많았으며, 상관분석(49회), 회귀분석(48회), 경로분석(6회), 구조방정식모형(20회), 그리고 요인 분석(10회)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초기에는 주로 기술분석과 더불어 차이검증, 상관분석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또는 선후관계) 및 이론적 모형 검증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회귀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등 더욱 정교한 통계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3. 연구주제 및 내용 고찰

선정된 논문의 연구내용은 가족관계 및 개인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척도개발 연구, 이론연구 및 기타 등의 4가지 주제로 나누어 가족유형별로 분석해보았으며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주제를 가족유형별로 분석한 이유는 가족 레질리언스

의 연구에서는 그 개념상 위기와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 전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72편, 77.4%)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가족은 장애자가족이었으며(29편), 한부모가족(12편), 다문화가족(8편), 치매노인가족(6편), 질환가족(5편), 알코올중독

(Table 7) Analysis Method

Year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12	f*	%
Analysis Method										
Qualitative Method				1		3	3	1	8	2.8
Quantitative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2	1	6	6	14	27	20	76	26.7
	Inferential Statistics									
	Difference	1		6	5	15	22	19	68	23.9
	Corelation	2	1	3	2	8	19	14	49	17.2
	Regression	1	1	3	4	9	17	13	48	16.8
	Path	1		2		2	1		6	2.1
	SEM			1		2	10	7	20	7.0
	Factor	2	1		2		5		10	3.5
Total		9	4	22	19	53	104	74	285	100

*multi frequency

(Table 8) Research Subject

Family Type		Family of a member with disabilities	Single parent family	Multicultural family	Family of an elderly dementia	Family of a member with illness	Family of an alcoholic	Adoptive/Foster care family	Family of a domestic violence victim	Family in poverty	Family of a retiree	Family of a missing child	General family	Total	%
Research Subject															
Family Relations	Whole family	9	5	1	5	3	1					1		25	26.9
	Parents & children	7	5										2	14	15.1
	Husband & wife			1					1		1			3	3.2
	Siblings	2												2	2.2
Individual	Infant/Child	4						2		1			2	9	9.7
	Adolescent		1						2				6	9	9.7
	Middle aged	1		4									2	7	7.5
	Old aged				1									1	1.1
Program Development/Evaluation		5	1	2		1	2	1					5	17	18.3
Scale Development		1				1							1	3	3.2
Theory/Others													3	3	3.2
Total		29	12	8	6	5	3	3	3	1	1	1	21	93	
%		31.2	12.9	8.6	6.5	5.4	3.2	3.2	3.2	1.1	1.1	1.1	22.6		100

자 가족(3편), 입양·위탁가족(3편), 폭력가족(3편), 그리고 빈곤가족, 퇴직가족, 실종아동가족이(각1편)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연구내용 중에 특별히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가족으로 분류하였다(총 21편, 22.6%).

1) 가족관계 및 개인관련연구

가족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44편, 47.3%)은 다시 가족전체(25편), 부모자녀관계(14편), 부부관계(3편), 형제관계(2편)로 나누어 살펴보고, 가족 레질리언스와 개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26편, 28.0%)은 생애 주기별로 유아/아동기(9편), 청소년기(9편), 중년기(7편), 그리고 노년기(1편)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가족유형을 12가지로 나누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유형 순으로 고찰하였다.

① 장애인가족

장애인 가족은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간호학, 복지학, 가족학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는 대상이다. 장애인가족의 가족전체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가족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밝히는 연구들(Jang, 2008; Kim, 2001b; Lee, 2000; Song, 2009; Choi, 2009a; Song, 2010)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Kim(2001b)의 연구는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우리나라 초기의 체계적인 실증적 연구로서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가족탄력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효과가 있으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의 관계에서 조절변수(moderator)로 기능함을 밝혀내었다. Kang(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보여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 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2006), 가족탄력성이 높으면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졌다(Son, 2010)고 보고하였다.

장애인가족의 형제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의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여와 미래에 돌봄 책임감이 증가되었고(Jang & Choi, 2011),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조직패턴과 의사소통과정 정도가 높은 장애인의 형제들이 사회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Seo, 2005),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을 경유하여 아동의 사회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Jung & Lee, 2009). Ahn과 Jung(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소 중 가족 응집성과 가족적응이 언어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가족 강인성, 가족 응집성,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이 가족적응에 이르는 경로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Yoo(2010)의 문헌연구는 가족이 장애라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장애가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고 완충해주는 보호요인 역할을 가족탄력성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가족전체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가족탄력성 구성요인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가족 적응에 직접(Lee & Koo, 2009; Hyun, 2008; 2007; Cheon & Im, 2007) 또는 완충역할을 하여(Hyun, 2008; 2007)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Kim, 2005).

부모자녀관계 연구들은 배경변수보다 가족 레질리언스가 이혼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고(Kim, 2010c), 여성 한부모들은 이혼이라는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 레질리언스 요인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음을(Kim & Lee, 2009) 밝혔다. Kim(2010a)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성인애착과 실존적 영성이 부분매개한다고 하였고,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사회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 즉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Kim과 Lee(2011)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구조의 차이보다는 가족탄력성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양부모가족에서도 가족탄력성의 효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에만 연구가 치중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③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31가족(93명)을 심층면접 한 질적연구(Chang et al., 2009)에서는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 및 스트레

스상향을 극복하고 건강성을 강화시켜준다고 하였고, Yang과 Lee(2011)는 가족탄력성이 부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 레질리언스와 의 관계 또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 52명을 심층면접한 Kang과 Hwang(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유무와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스키마, 사회적지지, 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2011b)은 가족탄력성이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족적응에 주효과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조직패턴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국적과 가족탄력성 요인 중 가족역할안정성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Na *et al.*, 2010).

④ 치매노인가족

가족탄력성과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탄력성 3가지 하위변인 중에서는 조직유형(가족자원)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Kim & Kim, 2009) 가족탄력모델의 변인들을 이용하여 가족의 부적응을 직접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Lee, 2008). 부양을 도와줄 사람, 가족스트레스, 문제행동보다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가족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Yoo, 2007a) 치매노인가족의 스트레스 및 치매노인 심신기능 손상 정도와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Yoo, 2007b). Seomun(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족의 내재된 힘의 하위요인 중 가족의 관리 자원, 가족의 강인성, 가족의 문제 해결 및 대응전략 순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의 복원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치매노인의 일상 활동 능력 정도, 돌보는 사람의 건강상태, 가족의 경제적 사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eomun *et al.*, 2005). 우리 나라는 앞으로 고령사회로 나아가면서 치매노인 인구의 수적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질환가족

만성질환가족의 가족관계를 연구한 3편의 논문은 모두 McCubbin *et al.*(1993)의 탄력성 모형을 이용하였다.

Lee와 Son(2008)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아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탄력요인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cCubbin *et al.*(1993)의 탄력성 모형은 한국의 만성 질환 아동을 가진 가족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i & Chung, 2004; Lee, 2004).

⑥ 알코올중독자가족

알코올중독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Ahn과 Jun(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의 세 가지 변인들 모두 가족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도전으로 인지하고, 위기상황을 함께 건디는 힘을 발휘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구성원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⑦ 입양/위탁가족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에 관한 연구가 각 1편씩 있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위탁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에는 영향을 미치나 행동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다만, 조직유형이 위탁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Kim, 2009),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 Kang, 2010)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조직유형만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의 경계와 조직이 안정되고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입양아동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⑧ 폭력가족

Bang과 Yoon(2006)의 연구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들이 부부 폭력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와 가족탄력성을 통해 (매개효과)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Kim, 2011b). 한편 Park(2010a)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가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폭력 등을 통한 학대를 경험했을 때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자살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⑨ 빈곤가족

빈곤가족의 아동 1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Yoo, 2012)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신념체계의 가족강점과 조직유형의 가족자원은 사회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⑩ 퇴직가족

퇴직한 남성과 부인들 174쌍을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퇴직 적응도가 높다고 밝혀졌다.

⑪ 실종아동가족

실종아동가족 45사례를 분석한 Park과 Kim(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 중 신념체계와 조직패턴이 가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9개의 하위요인 중 조직패턴의 연결성의 영향력이 컸다. 즉,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지지와 협력의 정도가 높아져 가족친밀감, 상호협력, 결속감이 커지게 되면, 실종아동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⑫ 일반가족

특별한 어려움이 언급되지 않은 일반가족에 대한 연구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의 여가활동이 가족탄력성 및 가족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Yi & Kang, 2009) 가족 레질리언스를 많이 확보할수록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갈등이 적게 나타났다(Hwang, 2005).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Park(2010)은 유아변인 뿐만 아니라 가족배경변인과 가족탄력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고 Kim(2012b)은 아동이 지각한 가족탄력성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아동의 내면화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밝혔다.

Jung과 Kim(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중 가족역할이 남녀 청소년의 자기애가 신체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탄력성이 학교폭력과 청소년 우울 및 자살을 부분 매개하며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과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Park, 2010b).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가족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더 자

기결정적으로 진로결정에 몰입할 수 있고, 진로행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Lyu, 2012) 부정적 정서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라도 가족탄력성이 높아 완충작용을 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심리기제가 작용된다면 자살생각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Kim, 2012.a). 또한 정서적 변인 중 긍정적 정서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으며, 성격적 특성 중에서 내적통제성이 가족탄력성과 유의 있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Kim *et al.*, 2007).

기혼중년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Park(2011)에 의하면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었고 Park과 Kim(2011)의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총 17편(18.3%)으로서 대상 가족유형별로 볼 때 장애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Lee, 2004a; Hong, 2007; Min, 2007; Chung, 2011; Kim, 2011a), 뒤를 이어 다문화가족 2편(Kim, 2008; 2010d), 알코올중독자가족 2편(Jang, 2001; Kim, 2010b), 한부모가족 1편(Hyun, 2011), 암환자가족 1편(Yang & Yoon, 2012), 그리고 입양가족 1편(Choi, 2007) 순이었다. 또한 일반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연구 2편(Choi, 2009; 2008)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3편(Yang *et al.*, 2006; Yang & Kim, 2004; 2003)이 있었다.

가족 레질리언스 프로그램 연구가운데 이론연구 1편을 제외한 16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9>와 같다. 우선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1편을 제외한 15편이 Walsh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적용한 연구는 8편이며, 실시회기는 6회기(4편)와 4회기(3편)가 가장 많았고, 양적·질적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한 연구(9편)가 다수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서는 7편이 가족탄력성 자체의 변화를, 7편이 설정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1편(Hong, 2007)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첫째,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이 더욱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프로그램 구성 자체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였으며 둘째, 참여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1회 실행에만 그치고 있으며, 또

한 추후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프로그램 효과 및 그 지속성 여부에 한계점이 있었다. 셋째, 대부분 가족참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된 측면도 프로그램 효과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3) 척도개발 연구

척도개발 연구는 장애아가족, 만성질환가족, 그리고 일반 청소년자녀가족을 위해 각 한편씩 (각 1.1%) 이루어졌다.

Oh와 Lee(1999)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체계에서 이론적인 복원력 모형에 근거한 복원력 관련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각 요인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FPSC, FHI, SSI, FSCH-E, FACI 8, FMWB 척도가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복원력과 관련된 가족의 강점과 스트레스나, 위험원, 위기에 대한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Lee *et al.*(2002)은 한국의 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

로 5개 요인(가족의 힘, 가족의 성숙, 외부자원 활용능력, 자체력, 재정적 추진력), 19개 문항의 가족의 기능회복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Ok *et al.*(2006)은 미국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IYFP:Iowa Youth and Family Project)가 한국 가족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부부의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자녀 양육행동으로 이루어진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의 요인구조가 한국 가족을 설명하는 데에 타당함을 밝혀내었다.

4) 이론연구 및 기타

이 외에도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일반가족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족 응집력과 관련된 특성들을 가족의 탄력성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Lee *et al.*, 2011a) 유아 교사들은 '가족 구성원 간에는 서로 믿음이 있다.', '가족끼리 서로 지지해 주고 사랑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유아를 가족 중 중요한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부모 자녀 간에 돈독한 애정이

〈Table 9〉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Resilience Program

Facto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i>Program:</i>																
Development(D) / Evaluation(E)	D	DE	DE	DE	DE	DE	DE	DE	DE	DE	DE	DE	DE	DE	DE	DE
<i>Theory:</i>																
Walsh(W) / McCubbin et al.(M)	W	W	W	W	W	W	M	W	W	W	W	W	W	W	W	W
<i>Number of Sessions</i>	-	6	8	8	5	20	6	4	6	4	8	10	6	9	7	4
<i>Number of Participants:</i>																
Experimental / Control Group	-	12/0	9/0	7/6	6/0	8/8	9/9	14/0	5/6	10/0	4/0	10/9	5/6	2/0	8/9	23/23
<i>Participants:</i>																
Individual(I) / Family(F)	-	I	I	I	I	F	I	F	I	F	F	I	I	F	I	I
<i>Analysis:</i>																
Quantitative(A) / Qualitative(B)	-	A	AB	A	B	AB	AB	AB	AB	AB	AB	AB	AB	B	A	A
<i>Statistical Verification</i>																
Pre-Post Test	-	O	O	O	-	O	O	O	O	O	O	O	O	-	O	O
Pre-Follow Up Test	-	-	-	O	-	-	O	-	O	-	-	O	-	-	-	-
Post-Follow Up Test	-	-	-	O	-	-	O	-	O	-	-	O	-	-	-	-
Interval	-	-	-	3mon	-	-	4wks	-	1mon	-	-	1½.mon	-	-	-	-
<i>Evaluation of Program Contents</i>		X	O	X	O	O	X	O	X	X	X	X	X	X	X	X

Note: 1. Jang(2001), 2. Lee(2004a), 3. Yang & Kim(2004), 4. Yang et al.(2006), 5. Choi(2007), 6. Hong(2007), 7. Min(2007), 8. Choi(2008), 9. Kim(2008), 10. Choi(2009b), 11. Chung(2011), 12. Kim(2010b), 13. Kim(2010d), 14. Hyun(2011), 15. Kim(2011a), 16. Yang & Yoon(2012).

있다.'를 탄력적인 가족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Shin *et al.*, 2010). 한편, Kim(2009)은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족의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을 통하여 가족건강성을 강화시키는 실천을 강조하였다.

4.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소의 영향력 고찰

<Table 10>은 McCubbin *et al.*(1993)가 제시한 모델의 가족 레질리언스 전체 또는 각 구성요소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McCubbin *et al.*의 이론에 근거한 논문 23편 중에서 종속변인의 수와 범주가 3개 이하이고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검증한 논문 16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McCubbin *et al.*의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한 논문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요인은 가족의사소통이었으며, 가족응집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은 Walsh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3개 구성요인 또는 전체가 각 연구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논문들을 분석한 것이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검증하고 종속변인의 수와 범주가 3개 이하인 논문 21편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조직체계였으며, 의사소통과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12편)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Table 12 참조>, 가족들이 위기와 역경을 겪고 있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조직 패턴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는 인지적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사회적 경제적 도움이 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사회 관계망 지원 등의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가족의 연결성이었는데 실종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Pak & Kim(2009)의 연구에서도 하위 요인 중 조직패턴의 연결성/응집성만이 유일하게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

(Table 10) Effect of Family Resilience Factors on Dependent Variables: McCubbin *et al.*

Analysis Factor	S E M										Path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direct (indirect) effect							moderating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Family Resilience	–	–	–	(*)	** (*)	*** (*)	*** (*)	**	–	–	–	–	***	***	–	–
Family Hardiness	(**)	(***)	(***)			IS			IS ***	***	*	(***)		IS	***	**
Family Coherence	–	(***)	* (***)			IS			–	***	–	IS		IS	***	IS
Social Support	(**)	***	–			***			IS ***	–	–	(***)		***	–	IS
Problem Solving & Coping	–	–	(**)			–			IS ***	***	*	–		–	–	–
Family Communication	**	(***)	–			**			*** ***	IS	–	***		**	–	*
Family Scheme (Evaluation)	(**)	–	–			–			–	–	–	IS		**	–	IS
Family Resources Management	–	–	–			–			–	–	**	–		–	–	–

Note: 1. Ki & Chung(2004), 2. Lee & Son(2008), 3. Ahn & Jung(2009), 4. Jung & Lee(2009), 5. Lee *et al.*(2011b), 6. Cho(2011), 7. Lyu(2012), 8. Yoo(2007b), 9. Jung(2008), 10. Lee & Jung(2009), 11. Soemun(2000), 12. Lee(2004b), 13. Yoo(2007a), 14. Kang & Hwang(2009), 15. Song(2009), 16. Jang & Choi(2011).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패턴 중 융통성/안정성은 예상과는 달리 다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작용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하위요인 가운데 신념체계의 초월과 영성은 가장 적게 다루어 졌으며(4편), 그나마 영향력이 유의미 한 것은 단 1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Kim(2001a)이 Walsh의 구성요소 중 초월과 영성을 제외하였고, 그 후속 연구들이 대부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국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양하고 여성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족들이 일치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초월과 영성이 가족에게 의미하는 바가 서양사회와는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Bang과 Yoon(2006)도 초월과 영성 요인의 기여도가 낮은 이유는 변수의 독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Table 11〉 Effect of Family Resilience 3 Factors on Dependent Variables: Walsh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i>Family Resilience</i>						**						***	***	ns		**				***	***
Belief System	*	***	*	** ns	*		*	**	**	ns	ns	ns			*** ***		***	***	ns		
Organizational Patterns	*	***	***	** ***	***		*	***	**	*	*	***			* ns		***	***	*		
Communication Processes	*	*	***	** ns	***		*	***	ns	*	ns	ns			ns ns		***	***	ns		

Note: 1. Seo(2005), 2. Cheon & Im(2007), 3. Hyun(2007), 4. Kim(2007), 5. Hyun(2008), 6. Kim & Kim(2008), 7. Kim(2009), 8. Kim & Kim(2009), 9. Pak & Kim(2009), 10. Ahn & Jun(2010), 11. Cho & Kang(2010), 12. Jung & Kim(2010), 13. Kim(2010), 14. Park(2010), 15. Park & Park(2010), 16. Son(2010), 17. Song(2010), 18. Kang(2011), 19. Kim(2011b), 20. Yang & Lee(2011), 21. Kim(2012),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12〉 Effect of Family Resilience Subfactors on Dependent Variables: Walsh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Belief System												
Making Meaning of Adversity (Family Coherence)	*	ns	ns	***	*	ns	ns	ns	***	ns	ns	ns/**/***
Attitude ^a	ns	-	*	ns	-	-	-	**	-	-	-	
Positive Outlook(Family Strength)	ns	-	ns	ns	***	ns	ns	**	**	ns	***	*/ns/ns
Transcendence & Spirituality	-	ns	-	-	-	ns	-	-	-	-	ns	*/*/**
Organizational Patterns												
Flexibility	ns	ns	ns	ns	ns	ns	***	**	ns	*	ns	*/**/**
Connectedness	**	***	***	ns	ns	***	ns	**	**	ns	ns	*/**/ns
Social & Economic Resources	**	**	**	*	***	ns	-	**	***	ns	***	*/**/**
Communication Processes												
Clarity	ns	ns	*	ns		ns	-			ns	ns	*/**/**
Open Emotional Expression	*	ns	ns	ns	***	ns	ns	**	***	***	ns	ns/**/ns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ns	ns	*	ns		ns	ns			**	ns	*/**/**

Note: 1. Kim(2001b), 2. Kim(2005), 3. Kim(2006), 4. Jang(2008), 5. Kim & Kim(2009), 6. Pak & Kim(2009), 7. Na, Kim & Choi(2010), 8. Son(2010), 9. Kang(2011), 10. Park & Kim(2011), 11. Kim & Yoo(2012), 12. Hwang(2005).

Note a: Attitude has replaced transcendence & spirituality in some researches since Kim(2001).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의사소통과정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주요요소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편 중 3편은 의사소통을 하위변인으로 세분하지 않았으며 Sixbey(2005)가 FRAS를 개발하며 행한 요인분석에서도 의사소통과정은 하나의 단일요소임이 밝혀졌다.

종합해서 McCubbin *et al.* <Table 10 참조>과 Walsh <Table 12 참조>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McCubbin *et al.*의 모델 적용논문들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가족응집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하였으나, Walsh 이론 적용 논문들은 반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자들이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척도들의 타당성을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93편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의 연도별 동향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도별 연구동향을 보면,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9년도부터이나 비교적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된 것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연구주제도 초기에는 장애아 및 장애가족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변화에 따른 비전통적 가족유형의 출현, 가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대두되면서 좀 더 다양화되었다. 특히 가족 레질리언스가 역경을 겪는 가족에 적용되어 왔던 것과 더불어 일반 가족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연구방법 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조사된 연구대상은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유형은 양적연구가 압도적이었고 질적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한 방법이 가장 많았고, 90% 이상의 연구에서 외국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Walsh(1998) 이론에 근거한 도구사용이 과반수에 이른다. 그러나 가족 레질리언스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을 다루면서 척도를 구성할 때 적용되는 구성 하위요인들의 수나 종류가 다양하여 아직은 합의된 보편화된 개념

이 정립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구문화에서 적용되어온 척도에 대해 문화적 타당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에 맞는 단일화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양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이론적 발전, 컴퓨터의 발달 등으로 인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셋째, 연구내용은 가족관계 및 개인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척도개발 연구, 이론연구 및 기타 등의 주제로 분류되었는데 그중 가족관계를 다룬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내용의 주제를 가족유형별로 보면,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가족은 구성원 중에 장애자가 있는 가족이었으며, 그 다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치매노인가족, 질환가족, 알코올중독자 가족, 입양·위탁가족, 폭력가족, 빈곤가족, 퇴직가족, 그리고 실종아동가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가족에 대한 연구도 21편에 달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방법과 내용상의 문제들이 내재해 있어 효과 및 지속성에 한계점이 있다.

넷째, McCubbin *et al.*(1993)가 제시한 모델과 Walsh 이론의 가족 레질리언스 전체 또는 각 구성요소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McCubbin *et al.*의 모델 적용논문들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가족응집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하였으나, Walsh 이론 적용논문들은 반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고찰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방법 측면

첫째, 조사대상의 대표성 보장과 연구의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확률적 표집을 통하여 충분한 수의 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연구에서는 무작위 배정을 실시하여 실험집단 뿐만 아니라 통제집단도 설정해야 타당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상호작용과정에 중점을 두므로 가족 전체의 역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구성원 모두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 레질리언스는 과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사정하기 위해서 그 가족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시간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연구와 더불어 종단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정을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만이 아니라 관찰법이나 심층면접법 같은 질적연구가 병행된 가족맥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족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다양한 가족요인을 포함하는 구체적 개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 레질리언스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본 고찰 결과 프로그램 내용평가와 효과검증력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 해당 가족의 욕구도 파악 등의 사전 탐색과, 가족 관련기관이나 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의 반복적인 실행 및 효과검증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한 한 부분적이라도 실시간 동안 개인만이 아닌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고찰결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측정방법 역시 혼용되고 있어 가족 레질리언스 문헌들의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상의 문제와 측정방법상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가족 레질리언스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른 외국의 척도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적으로 외국척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척도들은 서구적인 문화와 가족생활을 반영한 것이어서 한국 문화 및 가족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민족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므로, 한국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르러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인의 실정과 가치관에 맞는 한국 가족의 레질리언스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빈도와 내용을 볼 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의 가족문화에 근거하여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가족유형을 위한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의 개

발과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2) 연구주제 및 내용 측면

첫째,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주제 및 내용면에서 보다 더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비전통적 가족유형, 예를 들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신가구를 비롯하여 기러기가족, 노인 단독가구, 동거가족, 흠대디가족, 주말부부가족, 공동체가족, 위성가족, 탈북가족 등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요망된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증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다양한 취약가족이나 일반가족의 전체구성원 또는 개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기초한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원조와 지지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로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박사학위 논문들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나 그 과정에서 누락된 논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고찰, 연구과제

REFERENCES

- Antonovsky, A., &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Bienvenu,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 26-31.
- Boehm, A., Wertlied, D., Bendori, R., & Fishman, J. (2007). Building resilience among children at risk; Action Research to Guide Community-based Programs. Posted 2007 International Qualitative Research Annual Meeting.
- Coyle, J. P., Nochajski, T., Maguin, E., Safyer, A., DeWit, D., & Macdonald, S. (2009). An exploratory study

- of the nature of family resilience in families affected by parental alcohol abuse. *Journal of Family Issues*, 30(12), 1606-1623.
- Epstein, N., Bishop, D., Byan, C., Miller, I., & Keitnor, G. (1993). The M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 (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 Fife, B. L.(1995). The measurement of meaning in illness, *Social Science Medicine*, 40, 1021-1028.
- Jung, S. K. (2010). Family resilience: The force to overcome advers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6(1), 1-15.
- Karpel, M. (1986). *Family resources: The hidden partner in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 Kim, G., Kwak, K., & Pae, S. (2009).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8(3), 571-597.
- Kim, J. & Kim, Y. (2007).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published in journals between 1980 and 2006.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5), 25-38.
- Kim, M. O. (2001a).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McCubbin, H., & McCubbin, M. (1993). Family coping with health crise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Family Health and Illness*, 21-64.
- McCubbin, H. I., Thompson, A. I. & McCubbin, M. A.(1996),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 Moos, R. H. & Moos, B. S. (1994).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290 McNeal Hall, St. Paul, Minnesota, 455108.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David H. Olson.
-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M. (1987). Counselor's manual for PREPARE/ENRICH, MN:Prepare/Enrich.
- Park, C. S., Sohn, H., & Jeon, H. J. (2008). Review and research on families in later life: Past,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4), 797-813.
- Park, J. W. (1985) *A study on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inde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the Marriage and Family* 64, 349-360.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ixbey, M. T. (2005).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construct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USA.
-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2nd ed.), New York: Guilford.
- Walsh, F. Family resilience: Strengths forged through adversity, In Walsh, F. (Ed.) (2003). *Normal family processes* (3rd ed.), 399-423. New York: Guilford.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 Yoo, Y.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 Yuker, H. E., Block, J. R., & Young, J. H. (1966).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Human Resources Study*, 7, x, 170.

Appendix: 93 publications reviewed

<Family Relations & Individuals>

- Ahn, S. Y., & Jung, H. J. (2009). A path analysis on 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and the family-related variable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 factors of mothe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5(3), 167-188.
- Ahn, Y. S., & Jun, H. J. (2010). The effects of alcoholic family's family resilience on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155-174.
- Bang, H. J., & Yoon, G. J. (2006). Predicting resilience of married couples: Focused on the couple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2), 127-137.
- Chang, J. K., Jun, J. M., & Shin, Y. K. (2009). Analysis of resili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depth interview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6), 21-38.
- Cheon, H. J., & Im, Y. M. (2007).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adaptation of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ollowing divorce. *Family and Culture*, 19(3), 123-146.
- Cho, M. K. (2011).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 resilience on parenting self-efficacy of parents with disabled preschool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27(1), 323-349.
- Cho, M., & Kang, H. A. (2010). The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self-concept of adopted children in open adoptive famil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1(3), 99-116.
- Choi, E. K. (2009a). Resilience of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own syndro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Choi, H. J., & Lee, I. (2009).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7(2), 175-194.
- Chung, M. Y., Choi, E. Y., & Kong, M. (2011). The survey of family resilience of mother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 develop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0(2), 329-352.
- Chung, Y. S., & Lee, H. J. (2009). Effects of educational attitudes and rearing experience patterns on the resilience for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8(3), 85-103.
- Eo, Y. S. (2010).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family resilience in caregivers with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6(1), 209-226.
- Hwang, C. S. (2005). The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the aged parent and adult children confli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orea.
- Hyun, E. M.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stress and family resilience on the family adjustment of single-mother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59-84.
- Hyun, E. M. (2007).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107-126.
- Jang, M. H., & Choi, Y. (2011). The effect of the family resilience on the involvement of adult siblings in th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27(4), 1-24.
- Jang, Y. J. (2008). A study on family adaptation of families with disabled preschool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7(1), 67-87.
- Jun, J. S. (201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 and family resilience in family adults of children with seizure cerebral pals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Korea.
- Jung, H. J., & Lee, J. H. (2009). A study on the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social adaptation of

- autistic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5, 167-200.
- Jung, H. J. (2008). An analysis of pathways form family stress and family adaptation to social adaptation of autistic children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89-110.
- Jung, J. E., & Kim, J. M. (2010). The effects of narcissism, perfectionism and family resilience on adolescents' body imag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3), 1-17.
- Kang, H. K. (2011). The influence of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pon problem-solving ability -Center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Korea.
- Kang, H. O., & Hwang, H. W.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ess and family resilience on family adapt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1, 55-78.
- Ki, H., & Chung, N. W. (2004). Resiliency model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proces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1-24.
- Kim, A. J. (2005).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family stresses of single-parent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orea
- Kim, E. H., & Yoo S. K (2012).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5, 145-171.
- Kim, E. J. (2007). The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foster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orea
- Kim, G. E. (2006).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the father's childcare involve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 167-202
- Kim, H., & Lee, S. (2011).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of single parent family and two-parent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215-241.
- Kim, H. S. (2010a). The medi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family resilience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H. S., & Kim, J. S. (2008). The effect of the parenting stress on single mothers' adaptation -with the mediation of coping strategy and family resili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4), 1567-1584.
- Kim, J. H. (2011b).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f perceived by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men on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3), 85-107.
- Kim, K. S. (2010c).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 The case of residents in the institutional facilities for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Kim, K. S., & Lee, M. S. (2009). Family resilience in 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In case of residents in the institutional facility for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1), 89-105
- Kim, M. C. (2003). Resilience and adjustment of retir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6), 117-127.
- Kim, M. K. (2012a).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family resilience,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1), 61-83.

- Kim, M. K. (2011c).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family stress and happiness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6), 41-54.
- Kim, M. K., Kim, S. H., & Kim, S. H. (2007). Relationship of emotionality and personality trait with family resili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1), 395-409.
- Kim, M. K., & Park, K. A. (2012).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conflicts, depressions, family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of intermarried Korean m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1), 1-20.
- Kim, M. O. (2001b).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f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9-40.
- Kim, S. D., & Kim, Y. H. (2009).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the dementi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5, 7-32.
- Kim, S. H. (2012b).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aggress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 Lee, E. H. (2008). A Study on the level of family adaptation to family caregivers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An application of the family resiliency mode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9, 195-216.
- Lee, E. H. (2000). A Study on the level of family adaptation to schizophrenic patients: An application of the family resiliency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1, 173-200.
- Lee, E. H., & Koo, J. H. (2009).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on the adaptation of single-parent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61-80.
- Lee, E. H., & Son, J. M. (2008).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on the adaption of family with chronic illness chi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95-120.
- Lee, H. Y., & Park, J. Y. (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rried middle-aged men's family resilience upon the stress cop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2), 169-192.
- Lee, J. H., & Jung, H. J. (2009). Effects of family stress on social adaptation of autistic children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0(4), 15-31.
- Lee, J. H., Lee, J. S., & Lyu, J. S. (2011b).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19-34.
- Lee, S. A. (2004b). The influence of the family resilience with the family of chronic illness child on family adapta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Lyu, J. S.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Na, G. S., Kim, H. J., & Choi, S. S. (2010).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f migrant workers on the acculturative stress -Focused on Gimhae community-. *Korea Social Policy Review*, 17(2), 73-101.
- Pak, E. S., & Kim, H. M. (2009). The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f missing children on family stres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13(4), 453-480.
- Park, J. H., & Kim, T. H. (2011). The effects of family

- stress and resilienc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middle 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1), 229-257.
- Park, J. S., & Park, E. H. (2010). The influence of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family variables, family resilience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 203-225.
- Park, J. Y. (2011).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J. Y. (2010a).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 where child abuse have effect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8(4), 61-92.
- Park, J. Y. (2010b).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siliency on school violence causing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1), 345-375.
- Seo, M. S. (2005). The effect on family resilience on social adaptation of sibling of disabled pers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Korea.
- Soemun, G. A. (2000). Development of family with elderly dementia patient adaptation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Seomun, G. A., Chang, S. O., & Lee, S. J. (2003). Comparison of ADL and symptoms in elders with dementia according to family resiliency.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s of Nursing*, 13(1), 81-90.
- Son, J. I.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of fathers' participation, mothers' stress and efficacy in parenting, family resilience of disabled children -Compared with non-disabled children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Korea.
- Song, J. K. (2009). Strength and adaptation in families with epileptic children. *The Journal of Family Therapy*, 17(1), 145-165.
- Song, J. K. (2004). A Study of family coherence and family hardiness level of family of children with epilepsy and its predict facto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3, 131-163.
- Song, S. I. (2010).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for the stress and adaptation of family with mental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Korea.
- Yang, M. S., & Lee, H. S. (2011). Study on family resilience and dyadic adjustment of married coupl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2), 431-445.
- Yi, E. S., & Kang, E. Y. (2009).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ies with family memb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family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6, 887-897.
- Yoo, J. H. (2010). Literature review o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disabled children on the family and protective factors: Based on the Korean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9, 147-168.
- Yoo, Y. S. (2007a).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of the family with the elderly dementi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8, 31-50.
- Yoo, Y. S. (2007b). A study on adaptation of the family with the elderly dementia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Korea.

<Program Development/Evaluation>

- Choi, J. S. (2009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for middle-aged coupl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 175-208.
- Choi, J. S.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for couples in early stage of marriag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3, 103-152.
- Choi, J. S. (2007). An explo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for adoptive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361-398.
- Chung, M. Y. (2011). A study on enhancement of family resilience of parent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 development of art therapy program based on Ansim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Korea.
- Hong, J. A. (2007).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promotion program applying family therapl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Hyun, E. M. (2011). A case study of art therapy for improving family resilience of single-father family. *Journal of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18(2), 367-386.
- Jang, S. M. (2001).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model for improving family resilience in the alcoholic family: In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lcoholism. *Mental Health & Social Work*, 11, 53-77.
- Kim, G. E. (2011a). Study on effectiveness of family resilience program for fa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2), 443-465.
- Kim, J. Y. (2010b).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 of a program designed to strengthen resilience of families with alcohol dependent memb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 Kim, Y. S. (2010d).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arriage enrichment program based on family resilience approach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4), 59-90.
- Kim, Y. S. (2008).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adaptability of the resilient parenting program to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 189-222.
- Lee, I. (2004a).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of family psycho-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of family resilience -Targeted the family with mental illness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221-239.
- Min, H. S. (2007).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amily resiliency improvement program for improving family adaptation of person with brain inju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Sung University, Korea.
- Yang, M. H., & Yoon, G. J.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a program designed to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of inpatients with cancer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1), 121-139.
- Yang, O. K., Kim, Y. S., & Kwon, J. Y. (2006).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143-173.
- Yang, O. K., & Kim, Y. S. (200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4, 225-261.
- Yang, O. K., & Kim, Y. S. (2003).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program for increasing family resilience.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11, 115-147.

<Scale Development>

- Lee, I. S., Park, Y. S., Song, M. S., Lee, E. O., Kim, H. S., Park, Y. H., Choi, K. W., Chin, Y. R., Kim, D. H., & Lee, H. S.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family resilienc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560-569.
- Oh, S. A., & Lee, Y. H. (1999). Factor scale development related to resilienc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6(2), 21-48.

- Ok, S. W., Rueter, M., Lee, M. S., Lee, J., Kwon, H. K., & Nam, Y. (2006) The measurement development of Korean families with adolescents' family resilience: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the measuremen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 59-74.

<Theory and Others>

- Kim, A. J. (2009).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family 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 73-102.
- Lee, G. O., Song, Y. S., & Kim, Y. J. (2011a). Study on recognition about resilience (young children, family, community) of the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indergart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 181-196.
- Shin, H. K., Kim, Y. J., & Song, Y. S. (2010).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the childhood teacher about children,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2), 51-62.
- 김 수 일:2012. 09. 26.
수정완료일:2012. 11. 13.
게재확정일:2012. 11. 16.